

# 일제강점기 근대예술가의 혐오와 동정심\*

- 김동인의 소설과 창작론을 중심으로

최창근\*\*

- 목 차 -

- I. 서론
- II. 근대예술과 참인생
- III. 혐오와 수치
- IV. 동정의 반(反)사회성
- V. 결론

## |국문초록|

김동인은 근대문학의 선구자중 한사람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전근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문학을 조선에 도입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가 느꼈을 감정은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 속에서 그는 대중의 취향에 대한 혐오와 역겨움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에게 전근대 문학은 우연과 위선이 난무하는 수준 낮은 예술이었다. 이에 반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은 플롯에 의한 내적 논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832)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리로 서사가 진행된다. 플롯이라는 작가의 개입은 문학을 예술가의 창작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그가 액자소설을 만드는 것은 플롯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문학의 도입이 실패하자 김동인은 수치심 속에서 방황한다. 자신의 무능력과 현실의 벽 앞에서 그가 느낀 좌절이 수치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그는 동정심에 대해 집착한다. 그가 말하는 동정은 가난하거나 병든 자에 대한 동정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가 말하는 동정이다. 그는 범죄자 등 사회질서를 벗어난 인물들을 통해 동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때 범죄자와 예술가는 유사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김동인에게 동정은 예술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김동인, 근대문학, 수치, 혐오, 역겨움, 동정

## I. 서론

근대 문학의 선구자 중 한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동인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며 근대문학의 정착에 대해 고민한 인물이다. 그의 문학과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우선 그의 친일적 행위는 분명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그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 꾸준히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나 비현실적인 설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김동인의 천재성이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만든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문학이 김동인에게 상당부분 빛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그의 시행착오와 도전정신이 근대문학의 정착을 앞당기는데 이바지 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초기의 근대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김동인 역시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김동인의 오해는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한국문단의 오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문학과 문학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김동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이전에 인간 김동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의 작품은 근대적 예술가이기 이전에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김동인의 정신세계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김동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서양식 근대화를 실천한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철저히 근대화된 예술인 중 한명이었다. 특히 그는 예술가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동인의 소설 속 예술가나 예인이 사회를 개량한다거나 민족을 계몽한다는 의식을 전파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예술과 계몽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김동인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예술을 대중의 윤리와 도덕에서 분리시키고 예술가를 국가와 사회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예술은 독자적인 내적 질서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김동인과 『창조』를 함께한 친구들은 근대문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예술 공동체의 출현을 알린 인물들이다.<sup>1)</sup>

---

1) 양진오, 「근대 문학의 형성과 예술가의 발견-김동인의 소설을 통해서」, 『현대소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68쪽.

그러나 조선으로 귀국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직 전근대조차 벗어 나지 못한 식민지의 현실이었다.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문학의 시대를 열려 했던 김동인은 새로운 예술의 전파를 본인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처럼 시대를 너무 앞서 갔던 그의 소설은 대중과의 불화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무관심에 고통과 상처를 받은 이는 김동인 자신이었다. 식민지 조선은 아직 그의 문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동인 연구는 대부분 그의 예술가적 자의식과 작가적 천재성에 기반 해 동인이 예술가를 매우 특별하고 우월적인 존재로 인식했다고 보는 일면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sup>2)</sup>

시대와의 갈등 속에서 한 인간이 느낄 감정의 선을 추적하는 것은 그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 외적인 의미도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나아가 김동인이 조선에서 느낀 감정들이 작품에 드리운 그림자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근대예술과 참인생

김동인의 문학세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참’이다. 그가 추구하는 문학세계는 크게 ‘참예술’과 ‘참인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 참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인생이다. 참의 반대편에는 당연히 거짓의 세계가 존재한다. 예술과 인생이 김동인에게서 분리 불가능한 것이었다. 근대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개성의 중시는 작품과

---

2) 우미영, 「김동인의 문학과 예술(가)의 평가-예술가 소설과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59쪽.

작가를 동일하게 보게 한다. 독특한 작품은 그대로 작가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작가는 이러한 개성과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을 예술가의 본분으로 생각한다.

김동인은 또 플롯을 새로운 문학이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여겼다. 그는 이를 리얼 또는 리얼리즘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다. 그가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하고 플롯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서구문학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시대부터 플롯을 통해 서사를 끌어간다. 반면 한국의 고전문학이나 신소설은 플롯을 무시하고 우연과 작위적 설정을 남발했다. 선한 자는 상을 받고 행복한 결말을 맞아야 하며 악한 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전문학의 법칙이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기에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의 상투적인 구성을 보인다. 플롯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고전문학의 약점을 극복하고 개연성과 현실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품 자체를 독자의 선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플롯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는 작가의 독자성과 창조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선택과 배제에 의해 구성된 플롯만이 작품을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일 수 있게 한다. 작가의 의도만이 예술적 완성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김동인은 사진과 미술의 차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 물건을 지상(紙上)에 재현하는 데 사진이라는 방법을 취하면 정확 무비(無比)하여 부족을 칭(稱)할 데가 없다. 한 개의 불필요한 주름살, 흠, 티를 막론하고 촬영(撮影) 순간에 그 현장에 비래한 나비, 벌 등이며 바람에 불려온 띠끌이며 먼지 혹은 삼입할 필요가 없는 잡물까지라도 남김 없이 캐취가 된다. 그런지라 가령 촬영 목적물이 어느 건물의 노대(露臺)

라 할지라도 촬영기를 거치한 장소에 따라서는 정원이며 층단이며 의자, 탁자 기타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의 전부-뽀뽀러 가튼 정도로 중요하게 인화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관자(觀者)는 대체 그 화면의 무엇을 중요하게 나타내려고 제작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즉, 제작자의 주관이라는 것은 나타낼 수 없다.<sup>3)</sup>

거기 반하여 회화는 그러치 안타. 만약 제작자가 노대를 중시하고 만 들은 것이면 노대 이외의 것은 즉, 불긴(不緊)한 것은 몽롱히 나타내든가 혹은 전혀 무시해서 제거해 버릴 권리가 있고 필요한 노대는 더욱 명료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낼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대에도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가(加)하고 감(減)하고 첨(添)하고 삭(削)하고 혹은 색 깔의 형태 위치 등을 변경할 수까지 있을뿐더러 비목적물(노대가 아닌 자)은 전혀 다른 것을 그릴 수도 있고 정물(靜物)이며 인물물을 장식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천사(天使), 절기 등은 화제에 능하여 자유 선택할 수 있다.<sup>4)</sup>

김동인은 다소 억지스러운 상황이라도 작가가 의지를 가지고 플롯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독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주장한 인형 조종술은 인물물을 마치 인형처럼 과감하게 조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작가가 인물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작품을 그르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는 복선과 암시를 이용해 초반부에 이미 인물물의 죽음 등 특정한 결말을 계획해 놓았으면서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감자」는 이 인

3) 김동인, 「창작수첩」, 『김동인 평론전집』, 삼영사, 1984, 262쪽.(이하 『평론전집』과 쪽수표시)

4) 「창작수첩」, 『평론전집』, 262쪽.

형조종술이 완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형조종술은 작가의 의도가 지나칠 정도로 개입되므로 이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작위적이라는 세간의 평을 받기도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김동인의 선입견은 독단적이고 편협한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의 흔적이 보인다. 플롯에 대한 맹목적 신념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의 결합은 그의 소설에서 종종 여성에 대한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난다. 그는 필연성이 결여된 동기를 설정해 놓고는 마치 그 동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라도 되는 듯 상황을 전개시키다가 자신이 즐겨 택하는 여성의 죽음으로 끝맺는 경우가 많다.<sup>5)</sup> 한 인물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게 하고 작가가 계획한 사건을 앞뒤로 배열하여 소설 속 인물에게 정해진 결말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소설을 오직 인과성과 플롯의 관점에서 파악한 김동인은 논리적 인과관계만 성립하면 현실성이 다소 부족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독자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장치가 필요했다. 이때 액자형식은 문학적 효과와는 별개로 단절의 효과를 극적이면서 동시에 손쉽게 추구할 수 있는 양식이다. 이 특별한 서사장치 덕에 독자는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부족함을 눈감아준다. 그래서 독자는 쥐 한 마리 때문에 아내와 동생을 불륜으로 오해하고 결국 아내의 죽음과 형제의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믿는다.

액자형 소설은 서술자가 독자를 소설 속 소설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야기의 증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를 통해 허구성을 상쇄시키고 개연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처럼 액자식 구성은 내화의 사실성을 보증하고 내화를 현실로부터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한정하는 효과를 통해 인형조종술을 거리낌 없이 구사하게 함으로써 개연성에 대한 고민을 잠시

5) 유남옥, 「김동인 소설의 페미니즘적 분석 사고」,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283쪽.

접어들 수 있게 한다.<sup>6)</sup>

액자형 소설의 세계는 김동인 개인이 창조한 독자적이고 가상적인 유일무이의 세계이다. 자신의 창조로부터 나온 세계,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예술적 욕구에 의해 나온 이 세계가 참인 세계이고 참인 문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참인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 현실의식의 굴절과 단절이 상존한다. 전근대문학의 유산을 과감히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의식적으로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문학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의 삶에서 이러한 단절이 단지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그에게 현실과의 단절은 아마도 그의 유년시절부터 축적되어온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김동인에게는 모든 것이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세계이고 분리의 세계이고 단절의 세계였다.

우편국에 들어서 이백 원 보내 달라는 전보를 어머니께 치고 아오야마의 전영택을 찾아서 함께 김환을 방문하고 다시 최승만을 방문하여 모두 동인되마는 쾌락을 듣고 요한, 전영택, 나 셋이서 어떤 양식점에 들어서 함께 런치를 먹을 때, 우리들의 기쁨의 흥분으로 떠드는 이국말 소리에 다른 객(客)들은 놀라는 눈을 우리에게 던졌다. 이라하여 사천년, 이 민족에게는 신문학이라는 꽃이 그 봉오리를 벌리기 시작하였다.<sup>7)</sup>

그는 어려서 일본유학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근대문학을 꿈꾸는 문학도로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 식당서 모국어

---

6) 강현국, 「김동인의 창작방법론과 그 실천- 1920년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7, 국어국문학회, 2016, 290쪽.

7) 김동인, 「동인지의 발간」, 『김동인 전집』 8, 홍지출판사, 1964, 381쪽(이하 『전집』과 권수, 쪽수만 표시)

인 조선어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떠드는 그들의 주변에는 조선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 안에는 이미 겹겹이 그를 둘러싸는 단절이 있다. 조선어와 일본어, 피식민지인과 식민지인, 일반인과 예술인, 전근대문학과 근대문학 등 김동인은 몇 겹의 참과 거짓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상이 참과 거짓으로 나눠져 싸우는 격렬한 전쟁터가 아니라 거짓 속에 참이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참의 세계 속에 있으므로 알을 깨고 일부러 거짓의 세상으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조선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근대문학을 추구하면서 경험하는 것들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에게 버려야 할 문학은 춘향전과 심청전 같은 고전소설이었다. 이러한 소설은 우연이 남발되고 권선징악과 사필귀정 등 위선적이고 교훈적인 결말을 선호한다. 이는 현실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사회의 비정함을 은폐한다. 그는 대중의 취향을 바꾸기 위해 근대소설을 내 놓았으며 근대소설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또한 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때의 우리는 소설의 기초, 소설의 근간을 '리얼'에 두고 아직껏 「춘향전」, 「심청전」 혹은 「구운몽」, 「옥루몽」 등이나 읽던 이 대중에게 생경하고 건조무미한 '리얼'을 맛있게 먹으라고 강요하던 것이다. (중략) 처음에는 앞서서 정열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 생경한 '리얼' 문학을 대중에게 이거야말로 문학이라고 제공하고 있던 것이다. 대중은 짐작컨대 맛은 모르고 이 맛 없는 문학을 맛있게 받는 것이 이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인가 하여, 맛 없는 가운데서라도 맛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세월이 얼마를 계속하노라면 대중도 종내는 리얼의 '맛'과 '멋'을

이해하는 시절에 이르러라는 장구한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리알의 길만 고집하고 있던 것이다.<sup>8)</sup>

근대의 문턱에서 대중은 여전히 과거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신과성과 우연성, 권선징악의 논리를 더 선호한다. 그러기에 김동인은 그 현실 앞에서 독자에 대한 서운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언젠가 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고 자위할 뿐이다. 그가 이광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광수 작품의 계몽적 성격에 기인한다. 이광수는 문학을 사회변화의 무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래서 『무정』이라는 소설을 썼다. 김동인에게 이광수는 왕조시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시대적 인물일 뿐이었다.

### III. 혐오와 수치

김동인을 비롯한 『창조』의 동인은 자신들을 근대라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최전선에 선 예술의 투사로 인식했다. 문학이라는 전쟁터의 군인이자 비밀결사였던 그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와 비슷한 구도로 자신들을 이해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동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독립투사가 가지는 각오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독립운동가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가졌다면 김동인은 대중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혐오의 감정을 가졌다. 그 불신과 혐오의 근저에는 근대문학의 가치를 모르고 이를 무시하는 대중의 취향에 대한 반감이 숨어있다.

---

8) 「문단 삼십년의 자취」, 『평론전집』, 467쪽.

그러나 근대소설이란 자는 옛날부터 전한 많은 이야기보다 더욱더 평민의 반력자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내용을 갖추고 나타났다. 이것이 즉 근대소설의 특징이다. 옛날 이야기는 한낱 ‘이야기’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되기 위하여 그 속에 포함된 것은 ‘통속적 재미’와 ‘도덕적 귀결’이면 족하였다. 도덕적 의미를 나타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면 족하였다. 그러나 차차 이지화(理智化)하고 복잡하게 된 근대인에게는 그 두 가지의 요소만으로는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좀더 다른 경지를 개척하고야 비로소 평민 전체의 환호를 받을 것이다. 여기 근대소설 이전의 「이야기」와 근대소설과의 차이점이 생겨나는 것이다.<sup>9)</sup>

현금 조선사람 중에 대개는 아직 가정소설을 좋아하오, 통속소설도 좋아하오, 흥미중심 소설도 좋아하오, 참예술적 작품, 참문학적 소설은 읽으려 하지도 아니하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불용품이라 생각하고, 심한 사람은 그것을 읽으면 구역증이 난다고까지 말하오.<sup>10)</sup>

일반대중이 근대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역증, 이 역겨움은 그러나 실제로는 김동인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 문학과 독자에 대한 평가이다. 이 역겨움을 김동인은 상대의 발언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 김동인의 문학은 전근대를 살아가는 독자에게 철저히 배척당했다. 이는 김동인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모순이자 시대착오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힘만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단단했고 용인할 수 없는 타자의 존재는 곧 바로 혐오와 역겨움으로 발전한다.

타자의 존재에 대한 역겨움은 타자의 취향에 대한 역겨움이자 자기 자

---

9) 「근대소설의 승리」, 『평론전집』, 51쪽.

10) 「소설에 대한 조선사람의 사상」, 『전집』 10, 8쪽.

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한다. 즉 나르시즘적인 기반위에서 역겨움은 이를 유발하는 상대를 극도로 꺼리고 피하게 만든다. 혐오는 일종의 공포이기도 하다. 혐오는 전염과 부패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반응에서 시작하는 진화의 한 현상이다. 따라서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 주체는 생리적 현상을 수반한 본능적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인간은 이 순간 코를 움찔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신체적 메스꺼움, 구토와 구역질을 수반한다.<sup>11)</sup>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혐오의 대상이 주체의 영역 가까이 또는 바로 옆 나아가 내부로 침투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겨움은 주체의 세계가 타자에게 침식되고 부패되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이다. 주체가 이 혐오의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없게 될 때 거부 반응은 점차 커진다. 대중에 대한 김동인의 혐오와 공포는 그들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파괴하는데 대한 본능적 거부반응이다.

혐오는 또한 수치심과 함께 작용하는데 수치심은 높은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 또는 자신의 무능력과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즉 나르시즘적 주체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생기는 심리적 반응이 수치다. 결과적으로 수치심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응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며 따라서 자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12)</sup> 김동인이 일본에서 넘어와 느낀 최초의 감정적 경험 중 하나도 이 수치심이다. 천재로 세상에 알려진 그가 조선에 귀국해 자신의 뜻을 펼치려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대중의 철저한 무관심과 무시 그리고 혐오였다.

김동인의 작품에 대한 대중의 구역질 앞에서 그가 일본 어느 가게에서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산산이 파괴되었다. 동인은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본모습을 현실에서 마주하자 수치심에 빠지게 된다. 자신

---

11) 브라이언 마수비 외,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216쪽.

12)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38쪽.

만만하고 패기 넘친 젊은 문학가의 포부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만 것이다. 인간은 유아기의 전지전능함이 무력감과 쌍을 이룰 때 원초적 수치심이 생겨난다.<sup>13)</sup> 그런 점에서 이러한 좌절감은 김동인의 정신 상태가 유아기적 상태임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혐오와 수치는 독자의 성향을 철저히 무시하는 계몽주의적 태도와 지식인의 권위 의식이 만든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당대의 신문과 잡지에는 문예란이 상당한 인기를 구사하고 있었고 독자들은 이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표현했다. 특히 독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문예투고란 같은 경우 당대 독자층의 가치관과 의식을 알 수 있다. 신문 잡지 등 매체의 발전은 독자의 쓰기 욕망을 자극했고 이들의 활발한 참여가 다시 매체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대중의 쓰기 욕망은 구비 전승되고 있던 서사물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하고, 또 시대의 현장에 맞게 새로운 사건과 장치를 삽입해 현실성을 획득하며 매체를 유희의 장으로 만들었다.<sup>14)</sup>

당대에 유행한 신소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소설은 나름의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국가의 부재 속에서 신소설은 대부분 개화 계몽과 문명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가족 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독자의 공감을 사기에 유리했다.<sup>15)</sup> 이 때문에 신소설에 대해 친일문학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을 피하긴 어려우나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식이 작동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신소설의 특징 중 하나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연의 남발 역시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13)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감성』,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11쪽.

14) 전은경, 「근대계몽기 독자의 서사에 대한 욕망과 재생산적 글쓰기」 『편편기담』과 구조 학습의 효과,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74쪽

15) 김희주, 「근대초기 소설독자와 작가, 서사주체의 상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86쪽.

어렵다. 신소설은 다양한 서사물 및 고소설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이 적자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 흥미를 담보하는 우연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을 취했다.<sup>16)</sup>

김동인이 그토록 경멸했던 구시대적 전통과 윤리는 실상 당대 민중의 삶의 윤리이자 규범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했다. 또한 그와 같은 윤리가 국가 주권이 상실된 식민지 상황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담론에 의한 것임을 인식한다면 이를 김동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관습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김동인이 중시한 플롯의 개연성이나 인과성은 결과적으로 당대의 사회현실을 규정하는 질서와는 다소 모순되었다. 오히려 근대 예술을 주도하는 이들의 과도한 예술성과 형식주의가 대중의 문학 향유를 차단한 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문학이란 결국 독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동인의 접근 방법은 편협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동인은 독자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수치심을 역겨움과 구역질로 전환해 대중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보호했다. 그에게 대중은 근대의 맛과 멋을 모르는 우매한 존재들이고 자신은 그런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독자는 김동인 자신과 어떠한 접점도 없다. 김동인은 근대예술가라는 사명감 속에 살았으나 대중은 오히려 그런 김동인을 압박해왔다. 이렇듯 김동인의 혐오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서 작동한다.<sup>17)</sup>

---

16) 박상준, 「우연을 통해 본 이인직 신소설의 특징-소설과 우연 연구2-」, 『한국현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회, 2007, 34쪽.

17) 혐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한 감각적 혐오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생존적 혐오감,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나 관습과 이질적인데서 기인하는 문화적 혐오, 마지막으로 혐오를 유발하는 대상을 자신보다 미개하다고 여기고 그 대상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믿는 관념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권력적 혐오가 있다.(최현철,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철학탐구』 46,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7. 참조)

#### IV. 동정의 반(反)사회성

독자에 대한 혐오는 독자들의 독서 취향과 가치관에 대한 반감으로 변하게 된다. 그가 부정하는 전근대 문학의 핵심은 권선징악과 사필귀정 등의 통속적 윤리를 따르는데 이는 대중의 동정심에 기반하고 있는 서사 전략이다. 동정은 흔히 거대한 재난상황에서 작동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발생,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빈곤 앞에서 동정심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난다. 즉 객관적이며 실체적 근거가 명확할 때 동정심이 발생한다.

동정은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정은 근대적 사회체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원되어야만 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 중의 한명이 이광수이다. 그는 이성 간 혈연 간 사랑 보다 이웃 간 국민 간의 사랑과 동정을 강조하며 혈연 지연에 얽힌 개인을 민족과 국민으로 묶어내려 했다.<sup>18)</sup> 김동인과 이광수가 활동하던 1920년대 전후는 가히 동정의 홍수라고 할 만큼 동정담론이 퍼져 있었고 신문지상에는 동정음악회, 동정휴학, 동정파업 등의 기사가 자주 등장했다. 동정이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한 매개로서 거론되는 것은 국가라는 독립된 체제가 불가능한 식민지라는 시대적 한계 때문이다. 동정은 왕조시대와 근대 국가 사이에 있는 식민지인의 유일한 사회적 상상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정과 공감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일 뿐이며 사회의 작동원리는 그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개인이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을 바꿀 수도 없으며 동정은 대부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행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비극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

---

18) 김성연, “우리의 동정을 시험하라-근대적 ‘동정’의 분류(本流)를 찾아서”, 『문학과사회』 16(2), 문학과학사, 2003, 976쪽.

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인이 플롯을 중시하는 이유도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윤리의식의 간섭을 미연에 차단하고 작품 내적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는 서양의 근대소설이 추구하는 관점으로 많은 작품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의 벽 앞에서 한 개인이 처절히 실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차츰 김동인은 작품 내적 외적으로 일반적인 동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럼에도 김동인은 동정을 소설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동정에 대한 김동인만의 특이한 관점이 들어있다. 그에게 동정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을 마주할 때 드는 일시적 감정이나 값싼 시혜가 아니다. 이러한 동정은 대체적으로 동정 받는 사람을 자신보다 무능력하게 보는 위계적 시선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반면 김동인의 동정은 두 인물간의 내밀한 공감과 이해에 기반 한 경우가 많다. 이는 동정 받는 사람의 상황에 대한 전후사정을 세심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동정 받는 사람도 자신의 처지를 상대가 상세히 이해해주길 바란다. 따라서 동정은 상대에게 일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행해진 전 과정을 알아야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에게 동정은 삶의 영역이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었다.

나아가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는 개인과 이를 알려고 노력하는 두 인물간의 관계가 동정으로 나오기도 한다. 개인의 고통과 고뇌에 대한 전폭적인 이해는 개인이 감추고 싶은 비밀로까지 발전한다. 이제 동정은 한 개인의 내면에 감추어둔 비밀마저도 폭로하고 이를 통해 그를 동정한다. 은폐와 폭로의 테마를 구사하는 김동인의 많은 작품에서 침묵하는 개인과 비밀을 벗기려는 서술자간의 동정적 관계가 여러 차례 번주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고통을 당한 자가 침묵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비밀을 폭로하고자 하는 동정자의 욕망은 더욱 증폭된다.<sup>19)</sup> 동정의 작동 구조는 이처럼

---

19) 손유경, 「1920년대 문학과 동정-김동인의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6, 176쪽.

개인의 내면과 과거에 대한 폭로로 모아진다.

이러한 작품들은 은연중 대중의 동정심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기만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동정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동정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동정이 지닌 가벼움을 폭로한다. 그에게 대중은 즉흥적이고 감정 과잉에 빠진 존재들로서 진실이 아닌 현상만을 보고 쉽게 동정심에 빠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읽고 주인공의 처지를 동정하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중의 동정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위하여 김동인은 범죄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내세우고 그가 흉악한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는 범죄의 발생을 철저히 개인적인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 그는 개인의 기질이 우연적인 사건과 조우해 만들어진 플롯을 보여준다. 즉 플롯의 개연성을 통해 한 인물이 처한 비극적 운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비극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감자」의 복녀 역시 그녀의 불행은 무능한 남자와의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과 자신의 성격이 상호작용한 것이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선천적인 성격의 결함과 우연적 사건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연과 필연의 희생양이기에 동정 받을 만한 여지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동정의 층위가 나타난다. 대중의 동정은 현상만을 보고 반응하는 무가치한 것이며 자신이 말하는 동정이 진정한 동정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소설 속 인물에 대한 동정의 가능성을 묻는다.

그러나 그의 정직함을 상주지 않고 그의 부지런함에 응답지 않은 하느님도, 그의 죄만은 결코 용서치를 았았다. 그에게 일찍 한 마누라를 주어서 죄를 미전(未前)에 방지치는 못하였을망정, 이미 지은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하느님이 아니었다.

어떤 날 또한 어떤 집 처녀 방에 뛰어들어 갔던 그는 그만 그 곳에서 붙들리었다. 그리하여 그는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세상은 최서방의 가면에 모두 입을 벌렸다. 사람의 일이란 모를 것이야 하고 탄식하였다. 신문은 그를 가리켜 색마(色魔)라 하였다. 김장의 도혀를 차며 고약한 놈이라고 호통을 하였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 그의 과거 사십 년의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천진스런 삶에 대하여 한 마디의 칭찬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에게 일찍 한 마누라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런 광포성(狂暴性)을 발휘할 기회를 없이지 않음을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다.<sup>20)</sup>

「포플라」의 최서방은 평생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으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와 살인과 강간을 일삼은 범죄자로 전락한다. 어쩌면 별 일이 아니었을 선택이 뒤이은 사건들의 연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가 범죄자가 되는 과정에서 주변인물들은 방관자이자 공범이 된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그는 어쩌면 동정받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적지 않은 소설에서 그는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그의 범죄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성이나 우연성 등을 통해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작품 속 대부분의 범죄자는 알리바이나 객관적 증거의 부족으로 또는 본인이 저지른 죄의 잔인성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지 못한

---

20) 「포플라」, 『전집』 7, 490쪽.

다. 이때 판검사와 작가는 상반된 플롯을 제시한다. 제시된 플롯에 의해 주인공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한다.

소설 「증거」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개의 플롯을 제시한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S는 사실 범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를 직접 목격한 이 사건의 판사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증언의 실효성 때문에 증언을 포기한다. 반면 서술자는 S의 억울함을 독자에게 제시하며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I씨는 이번의 이 사건이 이년 전에 자기가 목도한 그 사건임을 알고, 몇 번을 그 때에 자기가 본 바를 모두 피력하여 버릴까 하였다. 그러나, 생애의 거의를 사법계(司法界)에서 보낸 그는, 자기의 말 뿐이 얼마나 피고에게 이익을 줄지 그 정도를 잘 알았다.

물적증거(物的證據) 이것이 아니면, 사법계에서는 통용이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증언을 인정시킬만한 물적 증거는?

뿐만 아니라, 그 날의 자기의 본 바를 다 말하려면, 그는 자기의 눈 앞에서 무서운 범죄가 실행되는 데도, 그것을 막거나 방지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그 때의 자기에 대하여 변명할 만한 재료가 없는 것이었다.<sup>21)</sup>

대중은 선과 악이 분명한 인물들을 선호하며 선인에 대해 동정하고 악인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김동인은 이러한 독자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한 남자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그가 손쓸 수 없는 외적 환경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동정이란 보통 동정하는 자의 자기만족적인 감정의 문제일 뿐이지

---

21) 「증거」, 『전집』 8, 43쪽.

동정 받는 자의 사연이나 맥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김동인은 상대를 진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동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참과 거짓의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다. 거짓의 세계가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파헤쳐 참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동정인 것이다. 즉 동정의 대상은 눈앞의 현상 속에 은폐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의미 있는 동정은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동정은 삶의 문제인 것이다. 김동인은 소설 속에서 사회 부적응자, 범죄자, 성도착자, 살인자 등 문제적 인간들을 등장시키고 이들에게 동정의 관심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이면서 동시에 거짓 속에서 구해낸 진실은 동정을 통한 범죄마저 용인하는 극단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O의 아내? 그런 변변치 않은 여편네 하나는 죽든 살든 아무 관계 없  
오되, 아까운 제주를 품은 O뿐은 결코 타락시키고 싶지 않았다.<sup>22)</sup>

O의 형은 외도를 하는 O의 아내를 자살로 위장에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O의 예술세계와 열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부정한 아내로 인해 고통 받는 예술가를 불쌍히 여긴 결과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결말은 김동인의 동정이 가지고 있는 폭력을 말해준다. 예술가의 천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를 대신해 살인을 하는 것마저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동정은 이제 동정하는 자의 무한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진실이 은폐되어 있다는 인식은 진실을 가리는 그 모든 현상이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도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실과 예술은 이처럼 김동인에게서 하나의 참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

---

22) 「유서」, 『전집』 7, 266쪽.

리고 그가 이를 온몸으로 실현하기 위해 참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은 동시에 거짓의 세계 즉 현실의 세계를 무의미로 가득 찬 세계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김동인에게는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좌절로 이어지고 결국 누군가의 이해에 기반 한 동정이 절실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결국 대중의 판단과는 결을 달리한 동정의식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소설이 허구의 세계이고 그가 부정한 세계가 현실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전도된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 V. 결론

김동인의 문학은 예술가로서 그리고 근대인으로서의 그의 지향하는 바와 자부심이 들어있기에 그의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문학의 선구자로서 그의 문학은 시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한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당대의 대중은 변화를 거부했다. 낡은 문학을 일거에 제거하고 새로운 문학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조선에 돌아온 김동인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예술의 세계로 도피하기 위해 액자형 소설을 창작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예술은 그 시대의 상식을 깨고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기에 언제나 대중의 무시와 외면을 받을 위험이 크다. 김동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았다. 부유한 집안에서 걱정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일본 유학마저 남들과 달리 풍족하게 생활했던 김동인에게는 대중의 외면은 문학청년으로서의 자부심에 큰 상처가 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그가 느낀 감정은 일종의 수치심이자 대중

에 대한 혐오였다.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자 그는 가상의 세계, 자신이 꿈꾸는 세계로 들어가 외부와 단절을 선택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동정했던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이해받고 동정받기를 원했던 예술가의 자화상이 바로 그의 소설 작품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김동인 평론전집』, 삼영사, 1984.

『김동인 전집』, 홍자출판사, 1964.

### 2. 논저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38쪽.

브라이언 미수미 외,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감성』,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강현국, 「김동인의 창작방법론과 그 실천- 1920년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7, 국어국문학회, 2016.

김성연, “우리의 동정을 시험하라-근대적 ‘동정’의 본류(本流)를 찾아서”, 『문학  
과사회』 16(2), 문학과지성사, 2003.

김희주, 「근대초기 소설독자와 작가, 서시주체의 상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박상준, 「우연을 통해 본 이인직 신소설의 특징-소설과 우연 연구2-」, 『한국현  
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회, 2007.

손유경, 「1920년대 문학과 동정-김동인의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6.

양진오, 「근대 문학의 형성과 예술가의 발견-김동인의 소설을 통해서」, 『현대소  
설연구』 1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우미영, 「김동인의 문학과 예술(가)의 광기-예술가 소설과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유남옥, 「김동인 소설의 페미니즘적 분석 사고」,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  
회, 1995,
- 전은경, 「근대계몽기 독자의 서사에 대한 욕망과 재생산적 글쓰기-「편편기담과  
구조 학습의 효과」,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 최현철,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철학탐구』 46,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7.

<Abstract>

## Japanese colonial era the hatred and compassion of modern artist

- Based on Kim Dong-in's novel and creative theory,

Choi, Chang-geun

Kim Dong-in is one of the pioneers of modern literature and is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e wanted to break with the previous generation and introduce new literature to Joseon. However, his attempt was shunned by the public. The feelings he must have felt at this time can be a beginning to understand his novel.

In the gap between ideals and reality, he has feelings of disgust and disgust at public taste. For him, pre-modern literature was a low-level art full of coincidence and hypocrisy. On the other hand, the art one seeks is narrated with internal logic by plot. The writer's intervention, Plot, makes literature a creation of artists. He makes framed novels to make the fictional world of plots more perfect.

However, Kim Dong-in wanders in shame when the introduction of modern science fails. His incompetence and frustration in front of the wall of reality appeared in shame. Meanwhile, he is obsessed with compassion. His sympathy is not for the poor or the sick. His understanding of people who are not socially understood is his

sympathy. He emphasizes the need for sympathy through people who are out of social order, such as criminals. At this time, criminals and artists are similar beings. So for Kim Dong-in, sympathy means understanding an artist.

Key words : Kim Dong-in, modern literature, Shame, aversion, Disgust, Sympathy

**최창근**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61186)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bsw1996@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21년 4월 12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 19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